

ACC '이음 지음'... 아날로그+디지털 '미학적 융합'

내년 7월까지 복합전시 2관 도시문화 이론 건축 공존성 한국·프랑스·일본 등 9개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내년 7월 21일까지 복합전시 2관에서 융·복합콘텐츠 전시 '이음 지음'을 개최한다.

2023-2024년 ACC의 핵심 주제인 '도시문화'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도시 공간 공통 소재인 '건축의 공존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예술가들의 현대적 미술 언어를 가시화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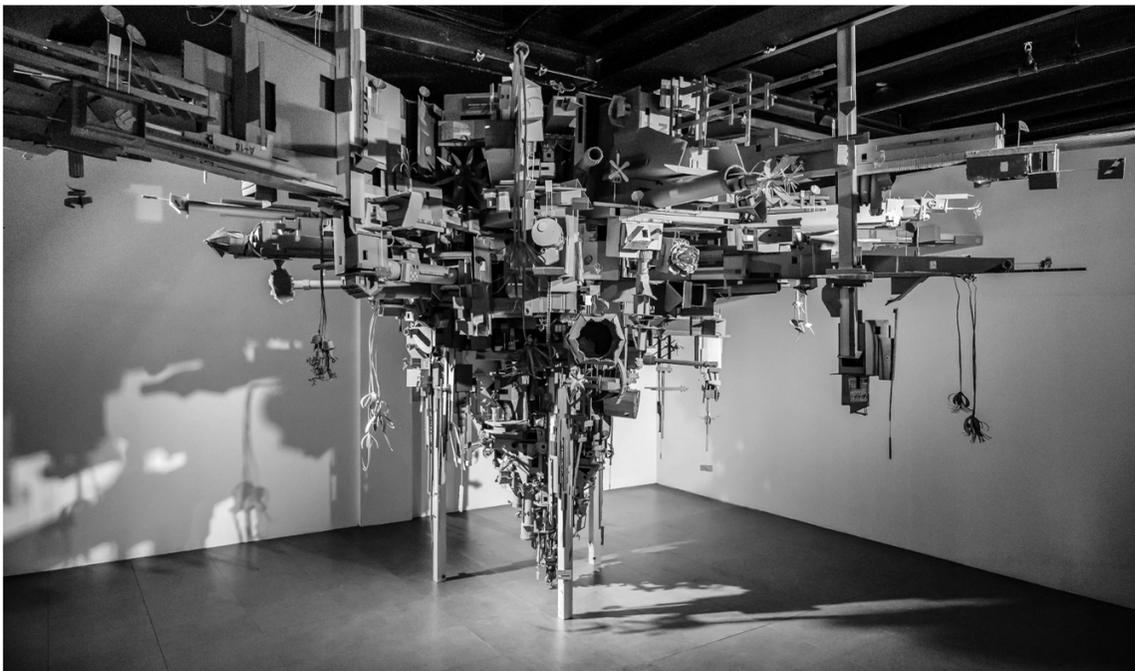
'이음 지음'은 건축의 '지음'(Construction)과 시공간의 연결적 '공존성(Coexistence)'을 '이음'(Connectivity)이라는 의미에 담아 조형적으로 시각화한 전시다.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도와 함께 존재한다는 공존의 가치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선과 면, 공간이 융합된 모습으로 표현했다.

전시는 '아시아의 도시 경관들이 가지는 시각적 공통점 또는 유사성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도시의 경관: 연결과 공존'을 주제로 한국,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독일, 스위스, 스페인, 독일 출신의 현대 미술가 19명(팀)이 19점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공존과 어울림의 의미를 전한다.

1전시 '달다/나에게 달다'는 조영각 작가가 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적 풍경을 대조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의 표면을 들춰내는 '병렬 울림'을 선보인다.

2전시 '있다/우리를 있다'에서는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Celeste Boursier-Mougenot) 작가가 180개의 백자 그릇이 원형의 푸른 수조에 떠있는



이자벨 & 알프레도 아퀼리잔 작 '인 해빛: 또 다른 나라 프로젝트'.

ACC 제공

'클리나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연결되는 공간을 보여준다.

3전시 '쌓다/대화를 쌓다'는 카도 분페이(Bunpei Kado) 작가가 '다트 게임'을 통해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 사회의 초상을 재치 있게 꼬집어 풍자한다.

파멜라 포 신 탄(Pamela Poh Sin Tan) 작가는 자연이 스스로를 지어가는 유기적 방식에 대한 존중을 담은 '에덴'을, 안니발 카탈란(Anibal Catalan)은 기존의 형태나 구조가 해체돼 분열, 일탈, 비틀림 등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재조합되는 '재해체 프로젝트'를 전시한다.

양민하 작가는 키네틱 오브젝트와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건축적 풍경을 보여주는 '변형된 시선'을, 로렌스 렉(Lawrence

Lek) 작가는 또 다른 세계 속 가상의 싱가포르에서 펼쳐지는 게임 작품 '206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에디션'을 내놓는다.

ACC 혼합현실 랩 참여 작가의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리 로이 작가는 '큐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유행하고 있는 도시 속 기억의 조각을 탐색하는 '제너레이티브 아시안 어반 시퀀스'를 선보인다.

토루 이즈미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갈등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풍경과 더불어 해외의 도시를 방문하며 느낀 영감을 모은 프로젝트 '당신의 도시-아시아 버전'을 공개한다.

이배경 작가는 작가가 만든 가상의 생명체인 하나의 '짐'이 관람자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돼가는 작품 '빅뱅 이전 2024'를, 하태석 작가는 '나를 위한 나

만의 공간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궁금증에 응답하는 작품 '하우스∞'를 내놓는다.

정정주 작가는 서울과 고양, 파주, 광주 등 작가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에서 담은 영상 '27개의 방-c2301'을 통해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서로 다른 도시의 욕망과 기억,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송성진 작가는 '도시의 온도: 그 길 너머'라는 작품을 통해 너무도 쉽게 사라지는 아시아 도시의 집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며 건축 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역사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필리핀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주한 이사벨 & 알프레도 아퀼리잔(Isabel and Alfredo Aquilizan)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동과 디아

스포라, 정착과 재정착, 집과 토지, 공동체와 가족, 기억과 정체성 등 이주에 관한 다양한 질문을 '인 해빛: 또 다른 나라 프로젝트'라는 작품을 통해 던진다.

지문(Zimoun) 작가는 요동하는 것 같은 도시의 균집을 표현한 작품 '168 prepared dc-motors'를 전시한다.

ACC 사운드랩은 도시 경험의 중요한 요소인 소리에 주목한 '도시 조직에서의 속삭임', 혼합현실랩은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모티브로 '공중도시'를 그려보는 '아시아 뉴토피아: 상상 너머의 공동체'를 내놓는다.

4전시 '짓다/꿈을 짓다'에서는 천대광 작가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빛 마늘처럼 보이는 '중첩된 시간과 겹쳐진 장소들'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러 아시아 국가의 도시와 마을이 모여 또 하나의 새로운 마을을 이루는 작품이다.

파블로 발부에나(Pablo Valbuena) 작가는 가상과 실재를 하나의 연속적 개념으로 엮어내는 공간적 실험을 기록한 비디오 작업 '장소 연구' 작품을 선보이고, 아즈마 코이치로(Koichiro Azuma) 작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56개의 자전가 바퀴로 만든 움직이는 조각 '무한차륜(無限車輪)'을 전시한다.

시간의 연속성 위에서 짓고 쌓아 올린 도시 속 어울림의 내용들은 참여 예술가들의 융·복합적 창발을 통해 '상상원'과 '커브'라는 복합전시 2관만의 공간적 정체성을 부각시킨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재료가 달고, 이어지고, 쌓여서 올라가는 건축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과도 비슷하다"면서 "이번 '이음 지음' 전시가 '함께 있음'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새단장

내년 1월 2일 재개관 7개 소주제·20개 체험

국립광주박물관이 어린이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해 내년 1월 2일 재개관한다.

27일 국립광주박물관에 따르면 어린이박물관이 도자 문화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롭게 단장해 2024년 1월 2일 재개관한다. '조물조물 꿈을 빛는 도자기'를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을 하면서 도자기 제작과 도자 가마, 도자기 교류와 쓰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조성했다.

전시관은 총 7개의 소주제와 20여 개의 체험으로 구성됐다. '토닥토닥! 흙과 도자기!'에서는 도자기를 만들기에 알맞은 환경을 알아보고 다양한 재료 속에서 도자기를 찾고, 어린이들이 직접 도자기의 형태를 만들어볼 수 있다.

'오밀조밀! 도자 정원!'에서는 모션인식 체험으로 도자기 무늬를 몸으로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상감, 인화, 음각·양각 등)으로 무늬를 나타낼 수 있다.

'타닥타닥! 도자 가마!'에서는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가마 속 불꽃과 도자기 무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고, 도자 장인의 마음으로 빛은 나만의 도자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철썩철썩! 보물선!'에서는 700년 전 방식으로 그릇을 포장해 선적박스를 배에 싣고, 배의 키를 조종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인터랙티브 체험 등을 통해 당시 무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요모조모! 생활 속 도자기'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 도자기를 찾아본다. 우주선에도 도자기가 활용되고 있음을 즐거운 체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다.

'싱글빙글, 모두의 도자기'에서는 사진을 찍고 도자기 무늬로 꾸며 내 얼굴이 도자기의 무늬가 되어 전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유아 놀이터에서는 유아들이 안전하게 신체놀이를 하면서 문화와 친해지고, 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새단장한 어린이박물관은 1일 총 5회로 나눠 사전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이배경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자 문화를 체험하면서 도자기가 언제나 우리의 생활과 함께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창의력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이박물관에서의 경험으로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광주문화재단, 광주 근현대 이야기 담은 책 3종 발간

곽재구 등 6인 '...광주천 상무지구 역사 ...상무대' '시장·마을·거리 문화사'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의 근현대 이야기와 장소, 문화사를 담은 도서 3종을 잇달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천을 따라 흐르는 삶과 예술 이야기를 담아낸 광주모노그래프 5편 '삶은 그렇게 물길 따라 흐르고-광주천(심미안)' △상무대가 있었던 광주상무지구의 역사를 발췌로 복원한 '요새의 땅, 광주상무대(심미안)' △광주의 전통시장과 유서 깊은 마을, 거리를 중심으로 광주문화를 새로 접근한 '광주100년: 시장과 마을과 거리의 문화사(푸른사상)'가 바로 그것.

광주모노그래프 5편 '삶은 그렇게 물길 따라 흐르고-광주천'은 곽재구, 김형수, 정경운, 한송주, 한재섭, 한희원 등 여섯 명의 필자가 그들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스며들었던 광주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고통과 폭압 속의 무기력한 삶을 마주하던 시절, 예술이 번성한 문화공간 저변에 존재하면서 우리와 오랜 시간 호흡해 온 광주천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광주천 불로동 다리 근처 목조 적산가옥에서 예술혼을 달구던 이들에 대한 기억(곽재구), 함평 출신 사내아가가 광주 사람이 되기까지의 여정과 사유(김형수), 광주천 언저리 시장통 속에서 자라난 'K장녀'의 성장기(정경운), 등나무집·불로다리 등 기자로서 만난 광주천 언저리의 추억(한송주), 광주와 얽힌 극장과 영화운동의 역사(한재섭), 예술이 흐르는 양림동의 어제와 오늘(한희원) 등 시인, 소설가, 화가의 감성과 통찰로 재해석된 에세이가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하다.

언론인이자 향토사학자인 김정호 선생의 '요새의 땅, 광주상무대'는 1990년대 이후 아파트와 공공기관, 화려한 먹자골목이 늘어난 신도심으로만 기억되는 '상무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복원한 기록이다. 고향의 나이에 발품을

팔며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광주천 직강공사, 비행장이 들어선 과정, 그곳에 터를 내린 마을들의 부침, 광주상무대가 들어선 배경과 현재 광주광역시청사의 의미 등 상무대와 함께 한 광주의 히로에락을 펼쳐놓았다.

'광주100년:시장과 마을과 거리의 문화사'는 올해 광주문화재단 주관 제2회 박선홍광주학술상 수상자인 심영의 씨의 저서이다.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그는 광주의 전통시장과 유서 깊은 마을, 거리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광주의 문화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했다. △1부에서는 광주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공간이자 다양한 사회적 교류와 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장소인 전통시장의 변천 과정을 △2부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니온 광주의 전통문화마을과, 근대사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3부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감각을 함양하는 유서 깊은 거리와 충장로와 금남로 등 광주의 역사를 품은 거리를 다루었다. **도선인 기자**